

등록번호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 센터-263
등록일자	2015.03.26
결재일자	2015.03.27
공개구분	공개



사무원	기획개발팀장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센터장	대표이사	
조운선	황미경	심재진	박춘배	03/27
협 조				

제5차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사업위원회 결과 보고

2015 . 3 . 26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제5차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사업위원회 결과 보고

- '15.3.19(목) 14:00 / 경기관광공사 교육장 (5F)
- 주요내용
 - '15년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사업 보고 및 의견 수렴
 - '15년도 노인사회활동 활성화대회 의견 수렴
 - '15년도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공익활동) 평가 추진 계획 의견 수렴
 - 민간취업 활성화 방안

□ 위원 참석

- 총 12명중 11명 참석
 - 불참(1명) 정선미 부천실버인력뱅크

□ 주요 건의(의견) 및 조치 의견

건의자	건의(의견)	조치의견
이종성	▪ 구인구직은 지자체 별로 이루어 지는 것이 효율적	▪ 도에 전달
	▪ 활성화 대회는 개최되는 지역 인근을 타겟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	▪ 사업추진시 반영
	▪ 민간취업은 예산에 버금가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정책 필요	▪ 도에 전달
	▪ 노인일자리지원센터는 어르신들이 하실수 있는 일자리 제공기업과 MOU 체결하는 역할 필요	▪ 추진 가능성 검토 ▪ 도와 협의
송승욱	▪ 활성화 대회는 일자리 박람회와 연계 하는 것을 고려(일반인 유도)	▪ 도와 협의
	▪ 유지할수 있는 방안과 제도적 지원 마련 필요	▪ 도에 전달
	▪ 지침 변경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하여 제고용으로 가능할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필요	▪ 도에 전달
강미경	▪ 활성화 대회는 권역별 행사 진행이 바람직	▪ 도와 협의
	▪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는 일자리들을 제공 하는 것이 바람직	▪ 도에 전달

이준우	▪ 여러기관에서부터 호응을 끌어 낼수 있는 적극적인 소통 필요	▪ 사업 추진시 반영
	▪ 적극적인 지역 신문, 언론 홍보 필요	▪ 사업 추진시 반영
신우철	▪ 활성화 대회 (시니어클럽 바리스타 경진대회) 추진 건의	▪ 추진 가능성 검토 ▪ 도와 협의
	▪ 활성화 대회는 호수공원 전체를 둘러서 곳곳에 프로그램 진행 필요	▪ 사업 추진시 반영
	▪ 노인일자리사업 서비스중 민간취업분야 부분은 경기도사회서비스지원단 하고 연계해서 정식 바우처 사업 추진 건의	▪ 경기도사회서비스 지원단과 협의
이규철	▪ 활성화 대회는 날짜 선정 중요	-
	▪ 65세 이상 교단에서 퇴직하신분들하고 연계하여 최소의 경비를 투자해서 최대 효과를 낼수 있는 시스템 마련 필요(사교육비)	▪ 추진 가능성 검토 ▪ 도와 협의
김춘남	▪ 인식개선 프로그램 집중해서 업체에서도 노인 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	▪ 사업 추진시 반영
	▪ 노인사회활동지원센터 명칭 생각 필요	-
	▪ 한국과 일본의 일자리 정책 비교 연구에 대해 설명함	-
	▪ 자원봉사와 노인일자리 겹치는 영역들을 구체 적으로 검토 필요	-

□ 집행액 : 700,000원

○ 회의 참석 수당 : 100,000원 x 7명 = 700,000원

별첨 1. 회의사진 1부.

2. 회의록 1부.

<별첨 1>

회의 사진



<별첨 2>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제5차 사업위원회
회 의 록

- 일 시 : 2015. 3. 19 (木) 14:00
- 장 소 : 경기관광공사 5층 교육장

1. 성원보고

○사회 (기획개발팀장) :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기획개발팀장 황미경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 중 인사이동으로 변경되신 분들이 있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다른 자리에서 이미 인사를 나누셨지만 저희 사업위원회 참석은 처음이시므로 오늘 새로 선임되신 분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심재진 센터장이십니다.
- 경기도 사회적일자리과 노인일자리팀 최영성 팀장이십니다.
- 경기도 복지여성실 노인활동팀 이규철 팀장이십니다.

이어서 참석위원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준우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강미경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춘남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송선영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송승옥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신우철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종성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장윤경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사업위원회 운영내규 제7조에 따라 재적위원12인 중 재석위원 11인,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5년 경기도노인사회활동 활성화대회, 민간취업활성화 방안, 그리고 협조 요청 사항으로 15년 노인사회활동 평가계획에 대한 의견 중심으로 진행 될 예정입니다.

회의에 앞서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센터장님의 인사말씀과 2015년도 사업계획에 관한 간략한 소개 후 이준우 위원장님 주재로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센터장님 부탁드립니다.

II. 개회

○ **심재진 위원** :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 10월에 노인일자리지원센터장으로 온 심재진입니다. 우리의 사업위원회 위원은 12명으로 위촉이 되는데 당연직 위촉과 선임직 위원이 있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되었습니다. 4회 사업위원회때 주요 의견으로는 먼저 신우철 부장님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회적경제 진입 지원사업 추진시 사업유형과 실정을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구요. 김춘남 위원님께서서는 한국과 일본의 일자리 정책 비교 연구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이 사업위원회 4회때 있었던 의견이구요. 이제 15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재진 센터장 설명)

○ **이준우 위원장** : 제가 작년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못해서 보니까 새롭게 오신분들도 열심히 해주시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 보니까 3가지 주제로 의견을 주고,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 해주는데 목적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먼저는 경기도 노인사회 활동 활성화 대회에 대한 좋은 의견이나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최영성 위원** : 요번 활성화대회는 장소선정에 대해서 크게 두가지입니다. 작년에는 경연대회에 중점을 많이 두고, 행사 위주로 했다 하면, 요번에는 구인, 구직 노인생산물 판매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판매를 이틀동안 할 예정입니다. 우천시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공간이 넓기 때문에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고, 그 다음에 날씨가 좋으면 밖에 유동인구가 꽤 많습니다. 장소 정하게 된 계기는 우천시에도 좋고, 전시판매도 가능하고, 또 참여어르신들이 도시락 먹을 공간도 있어서 장소는 좋은 거 같습니다. 저번주에 복지부에 갔다와서 예산문제도 협의를 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싶은게 구인구직에 관해서도 센터에서도 노력 하시겠지만, 관내에 그런 것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연결되는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활성화 대회를 전시판매와 구인구직으로 갔을 때 실질적으로 수행기관에서 원하는 일인지 그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 **이종성 위원** : 구인구직 의미는 좋은데요. 이게 경기도 노인 사회활동 활성화 대회기 때문에 경기도노인일자리수행기관의 어르신들은 이미 일자리를 갖고 계신거나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구인 구직은 의미가 없다 지역적 한계가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고양에서 한다고 하면 고양에 계신 어르신들 중에 노인일자리에 참가 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오셔서 그 정보로 고양시에 있는 인근 기업에 구인 구직이라면 모를까 예를 들어서 수원에 계신 어르신이 가셔서 또 수원에서 가시는 어르신들 대부분 노인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계신 어르신들 이라는거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지역별로 지자체 별로 이루어 지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거에 대한 대안이 없으면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 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송승욱 위원** : 방법을 모색 한다면, 각 지자체 마다 일자리지원센터에서 박람회를 하잖아요 의왕시도 분기별로 하거든요. 그때 보면은 지역의 업체들을 모셔놓고 그 인근에 안양 군포 의왕에 계신분들 다 오게끔 하더라구요. 지역적으로 고양시 한정적일수는 있지만, 만약에 고양시에 일자리 박람회와 연계해서 그날짜에 와서 해라 라고 하면 일반인들을 유인할수 있는 방법일거 같습니다.

○ **이종성 위원** : 매년 그래왔듯이 올해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 뭐냐하면 각 경기도 31시군에서 노인일자리수행기관에서 버스 대절해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오실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어르신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분들에게 활성화대회에서 구인구직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고양에 노인사회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일반 어르신들이 오시거나 송승욱 위원님이 말씀하신거와 같이 인근 지역에 참여하지 않는 어르신들이 오신다고 하시면 매우 효율성이 있을거라는 기대는 합니다. 그러나 매년 해왔던 것처럼 지금 참여하시고 계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구인,구직은 제가 볼때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 **최영성 위원** : 노인사회활동에 참여어르신들이 고정적인 일자리를 원할수도 있구요. 사전에 흥

보가 되면 관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적인 측면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수 있을지 의견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 **이종성 위원** : 31개 시군구에 전지역을 커버할수 있는 구인 구직이 아닌 개최되는 지역 인근을 타겟으로 삼는거죠 전 31개 시군구를 타겟으로 삼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강미경 위원** : 저는 기왕할거면 권역별로 나눠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군데에서 크게 한다는거는 시너지 효과가 있지만 효율적인 측면으로는 권역별로 나눠서 행사를 진행을 하면 구인구직도 가능하고 기존에 사회참여활동 하시는 어르신들도 전환으로 취업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줄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늘 불만이었던게 뭐냐하면 여주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산까지 가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소규모에 인원만 모시고 갔다가 행사참여 의미만 두고 오거든요. 그렇지 않고 인접지역들 이천에서 행사를 한다고 하면 버스 한번만 타고 30분만 투자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권역별로 행사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시나 판매도 그렇게 나눠서 하는게 더 나을거 같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안이 너무 좋기는 한데 행사를 꼭 진행해야 된다고 하면 권역별 행사가 진행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신우철 위원** :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에 일자리경진대회에 대해서 좀 비관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경진대회 자체가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해도 인식개선 대상자는 없고 각종 생산품 판매를 해도 판매할 사람이 없는 그런 경연대회였었죠 킨텍스, 수원에서 했을때에도 저는 이번에 장소를 보고 이전에 해왔던 방식으로 해도 어느정도 효과를 볼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매년 꽃 박람회를 갑니다 경기도 북부권에 있는 일반 사람들도 그렇고 서울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아동과 그 보호자들 시니어들 청장년들 다양한 계층이고 많이 모이는 행사입니다. 그런 자리가 때문에 오히려 인식개선 사업이나 생산품 판매가 이번엔 잘 될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식도 저희가 조금만 다듬어서 진행을 한다면 이장소 에서라면 충분히 성과는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인구직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종성실장님이랑 강미경 센터장님이 말씀하신것과 같이 경기도 남북부 전체를 포커스를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는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이 꽃박람회 행사 특성상 오시는 분들이 일자리 참여하는 수행기관 참여어르신이 아니라 서울전지역 경기도 전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이 구경을 많이 하러 오십니다. 일자리 참여 어르

신들만 타겟으로 해서 일자리 박람회 개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성 위원** :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꽃박람회 끝나도 전시를 계속 하기 때문에 계속 찾아오십니다. 백화점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거기는 경연이 안되고 음식물 반입도 안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2가지 같이 하는 곳이 없다 보니까 찾은곳이 이장소입니다. 위원장님도 괜찮으시면 2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규철 위원** : 제생각은 다 공감을 하지만 일산이 유동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교통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시작하는게 어려움이 있지만 극복하고, 보완을 해서 하시면 괜찮을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 **이준우 위원장** : 여러 의견들을 생각해 보니까 행사기간에서 최대한 집중을 하는 부분에서는 대체적으로 동의 하시는거 같습니다. 이기간에 권역별로 나눠서 하느냐 행사 때는 행사에 집중을 하면서 구인구직에 특성화는 있지만 전체적인 틀 속에서 진행을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때는 이번 기회에 시니어클럽이나 노인복지관에서 여러 기관에서 밑에서부터 호응을 끌어 낼 수 있는 적극적인 소통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정해놓고 모집하는 수준보다는 가능하다면 밑에서부터 신청을 끌어내는 작업이 중요하겠단 생각이 듭니다. 홍보는 예를 들어 내고 향 6시라던지 적극적으로 지역에 신문이나 언론을 활용한다던지 경기도복지관협회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경기도의 어르신들을 위한 잔치 한마당을 갈수 있는 방법을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장소는 좋은 장소라는 생각이 드네요.

○ **신우철 위원** : 저도 좋은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행사의 포커스를 대중 쪽으로 맞추고 하시면 좋지 않을까 예를 들면 경연대회 동안에 경기도에 실버카페 많잖아요 시니어클럽 바리스타 경진대회를 열어서 거기서 상금도 걸고 구경하러 오신 분들에게 커피 한잔도 대접해 드리고 그러면 그분들이 아 노인분들이 하시는 카페라고 해서 맛이 없는게 아니구나 이런걸 좀 알려주면 그분들이 돌아가서 그지역에 실버카페를 자연스럽게 가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이번 대회는 포커스를 우리들을 위함이 아닌 지역주민들을 위한, 아동, 청소년, 주부,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연대회가 되도록 이번엔 성공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장소에 장점이 야외에 계속 꽃이 전시되고

있기 때문에 야외에서 생산품 전시는 잘될거 같습니다.

○ **최영성 위원** : 이 경진대회가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위로 잔치를 비슷하다 보니 126,500,000이라는 돈이 너무 아까운거예요 하루에 돈을 다 써버렸는데 행사만 이렇게 하는게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여권이 판매를 못하게 하고, 식사 문제도 중요하고 저희가 8군데를 생각해봤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일반인에게 노인일자리 인식 개선을 할수 있는지 의견을 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 **이준우 위원장** : 가능하면 지역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연결해서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관심을 유도하는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취업마당이나 생산품을 판매해야 하는것도 있지만 누구나 와서 보고 즐길수 있는 그런 문을 개방할수 있는 대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신우철 위원** : 나중에 이거에 관련된 TF팀이 형성이 되겠지만 꽃전시관에 집중하지 마시고 호수 공원 전체를 둘러서 곳곳에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시는게 그럼 그걸 통해서 꽃전시관으로 집중이 될수 있거든요. 공연장에서 어르신들이 계속 공연을 한다던가 판매는 야외공간에서 한다든가 그 공간 자체를 넓게 보시고 사용에 기획을 하시면 결국은 시민들이 전시관으로 오시게 될거예요. 그렇게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 **최영성 위원** : 네, 의견을 좀 주세요.

○ **이규철 위원** : 6월 달이라 장마 기간인데 날짜 선정이 중요할거 같습니다.
그런부분이 좀 우려가 됩니다.

○ **김춘남 위원** : 저도 구인구직, 판매 위주쪽으로는 찬성이구요. 이번에는 인식개선 프로그램에 좀 집중해서 노인 대상만이 아니라 업체에서도 노인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노인들도 저희가 이번에 노인일자리에서 노인사회활동지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원봉사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자원 봉사에 대한 구분도 개념에 대한 구분도 포함해서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한다면 일반시민들한테도 폭넓게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 **이준우 위원장** : 지금 김춘남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 학교가 바로 전주에 기말고사가 끝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경기도에 사회복지학과 학생이나 아이들에게 노인들을 위한 UCC공모전을 한다던지 공연을 하면 그대신 시상을 한다던지 자원봉사 점수를 준다던지 그러면 동아리 활동하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마술 동아리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면 좋을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심재진 위원** : 위원장님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 **이종성 위원** : 저는 이 얘기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세부 프로그램을 하기전에 성격규정이 되어야 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까지는 어르신 대 어르신이었어요. 어르신들이 어르신들과 같이 어울리는 행사였는데 지금 김춘남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인식개선쪽에 있다하면 이제는 어르신 대 어르신이 아니고 어르신들이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성격규정을 처음부터 그렇게 가야하지 않을까 그래야 그다음 풀어나가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 **김춘남 위원** : 주제량은 좀 별개인데 노인일자리지원센터잖아요 근데 저희가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으로 바뀌었어요. 키워드가 바뀌어서 우리도 노인사회활동지원센터로 바뀌어야 하나요? 우리도 이 명칭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거 같습니다.

○ **이준우 위원장** : 그 다음 안건으로는 15년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평가인데 이부분은 저희가 얘기 해야 할 부분인데 이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밑에서부터 다양한 소리를 듣는 형식상이라도 자주좀 만드는 것이 나중에 오류가 안생길거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하는건가요? 경기도에서 해서 반영이 될수도 있나요?

○ **황미경 팀장** :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지표 발표가 수요일날 났습니다. 지표에 대한 의견수렴에 대한 공문이 내려와있구요. 담당 주무관님이 요청하신 사항이 이 변경된 지표들이 경기도쪽에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수 있을지 그런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시면 반영을 해서올리겠다는 말씀이

세요.

○ **최영성 위원** : 이 내용은 평소에 생각하신게 있으시면 시군을 통해서 의견을 주시면 될거 같습니다.

○ **신우철 위원** : 다행히 이지표가 복지부에서 직접 만들어 진게 아니라 인력개발원이 만든것이고, 인력개발원 자체 개발이기 때문에 의외로 의견수렴이 잘 됩니다.

○ **강미경 위원** : 저는 시장형 사업에 평가를 했었는데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다 모아서 평가 기준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 **이종성 위원** : 사실은 이평가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올해는 공익활동으로 바뀌었지만 사회공헌형 평가가 있었던 내용입니다. 거기에 올해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된 전국형 노노케어 이부분이 추가 된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다 새누리에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가 이루어지구요. 나중에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시군과 교차평가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처음 생긴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내용을 넣으신것에 대해서는 기존에 그 평가가 있었지만 그 평가 과정에서 불합리한 지표가 있었다면 개선해보자라는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최영성 위원** : 의견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시군을 통해서 주시면 될거 같습니다.

○ **이준우 위원장** : 이제 경기도 노인 민간취업 활성화 논의에 대해 평소에 생각하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 될거 같습니다.

○ **김춘남 위원** : 저는 현장에 계신분들이 더 체계적이실거 같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민간취업 활성화 이부분을 말씀드리면 제가 현장 검사를 짧은 경험 하에서 노인분들이 직접 예를 들어서 참기름이라던지 품종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구입할수 있는 제품은 정말 경쟁에서 뺏길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노인에 대한 배려를 하는게 아니라 똑같은 경쟁을 해서 뭔가 정말 물건을 사고

싶어서 사야만 하는 그런 부분이라 노인들의 특성을 살려서 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활성화 시키는 차원이 하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일본과 저희는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 조금전에 인식개선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일본도 65세 퇴직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취업할수 있도록 재취업 이라던지 계속해서 고용을 할수 있는 것을 정책적으로 밀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민간기업이 참여를 많이 안한대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홍보하는 역할 노인 본인이 홍보도 하고 자기자신을 PR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PR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을 진행한다거나 그런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도 노인 분들에 대한 PR도 있겠지만 민간자체에서 민간기업에서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나 계기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심재진 위원** : 그래서 그게 기업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장애인 같은 경우는 법에 의무고용을 하게끔 되었습니다. 아마 충북에서는 60세이상 노인 5%이상을 고용을 하면 인센티브가 있는걸로 있습니다. 이것도 괜찮은거 같은데 저희 일자리센터에서만 하기에는 버거운 부분이 있고 정책으로 해야 하는 부분인데 저희 센터에서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참 힘든 부분인거 같습니다.

○ **김춘남 위원** : 저희가 2013년도에 연구 진행을 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고령화율을 비교 해서 노인일자리 정책비교를 했었거든요. 거기서도 일본의 사례들을 제시 했는데 예를 들면 복지시설 같은 경우가 그래요. 정년하고 퇴직하신 분을 다시 재고용하면 그 복지시설에 어느정도 인센티브를 주는거예요 그 시설은 재고용을 하는 상태가 되면서 임금은 낮아지지만 또 지원을 받는거죠 그렇게 활용하는 복지시설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 있어서는 연구를 더 할수 있는 방법들은 있습니다.

○ **송선영 위원** : 사업계획에 보면 조사연구개발에 신규프로그램 개발 있잖아요 이사업과 연동을 할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기도에 직업군이 있을거예요 그 직업군들을 역으로 분석할수 있겠다. 그 직업구를 놓고 경기도의 노인들에 말하자면 특성을 가지고 경기도에 분포되어있는 노인들이 할수 있는 지역구가 있겠죠 그 직업군 대비 경기도에 포진되어 있는 사업체가 있을 것이고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인센티브와 연동을 해서 재현 해볼수는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신규프로그램 개발과 같이 진행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 김춘남 위원 : 지금 말씀하신거는 저희가 노인일자리와 자원봉사의 영역 분리라는 연구를 한적이 있었어요 계속 참여 해주셨었는데 현장의 의견을 모아서 저희가 제시를 했는데 그게 딱 맞아 떨어졌어요 저희가 제시했던 사회활동지원사업이라는 키워드가 노인일자리로 가면 안된다 의견수렴해서 나온 얘기 였는데 거기서 저희가 영역 분리를 했어요 자원봉사와 노인일자리 겹치는 부분 영역들을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거와 같이 접목시켜서 검토해볼 필요는 있을거 같아요. 현장분들이 더 참여해주시고 기업쪽으로 저희가 제안을 해서 그다음으로 사업으로 연결 시켜서 좀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을거 같습니다.

○ 이준우 위원장 :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중요한 안으로써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구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가지고 활성화 대회 할 때 에도 실천적인 세미나로 해서 현장에 계신분들로 살아있는 현장 사례 들로 아이디어 경진대회라던지 이런걸로 연결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강미경 위원 : 저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인센티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인센티브는 노동부에서 줘요 고용장려금이라던지 지원을 받는데 이 절차가 너무 복잡한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 꺼려하게 되는거예요. 고령자를 고용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혜택들이 있습니다 하더라도 서류전형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니까 그냥 안할게요 하는 업체들이 많거든요. 그런분들을 좀 행정적으로 지원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그나마 좀 더 고령자를 고용하는 업체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민간취업이 주 업무인데 하다가 느끼는것들이 뭔가 하면은 어르신들이 민간기업에 들어가서 하신다는게 쉽지는 않은 일이고 어르신들이 할수 있는 일거리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순환되는 사업들을 만들어 내는게 장기적으로 봤을때에는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력이 있다면 어르신들이 일할수 있는 공간을 한 기업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요즘에 경로당에서 공동작업장을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마스크팩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물류비가 적게 나온다고 하면 그냥 여주에 딱 이걸 떨어뜨려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물류비를 줄이고 그공장을 저희 여주 지자체에서 수용을 한다고 하면 그걸 아예 딱 띠어다 놓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좋은거예요 활성화도 되고 있고 이게 물류비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업체에다가 여주까지 물건을 갖다주세요 하기가 좀 어렵기는 한데 소규모

에 수익이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일을 할수 있거든요 그런것들이 활성화 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업체 민간취업 시키는거는 제한들이 있더라구요 70대 80대 되신분들을 해드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자체 별로 그런 기업들을 지자체로 끌어드려서 지속적으로 활성화 되는 일자리들을 좀 제공해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선영 위원 : 사실 어르신들은 분류를 하면 취업으로 계층이 있는거잖아요 취업으로 계층의 핵심은 경기도에 있는 취업으로 계층이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 플러스 창출하는 건데 지금은 취업하는게 아주 쉽게 갈수 있는 길일수 있죠 또하나 어르신들이 할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 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저는 그런고민이 들더라구요 저도 자활과 관련되어 있는 일을 하지만 취업으로 계층은 에로 계층인 이유가 있는거잖아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디핀팅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봤을 때 비율로 보자면 30대 70 정도가 가져가야 된다고 보는겁니다. 70이 말하자면 그분들이 일할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내는 것 나머지 30이 위에서 비교해 있는 분들이 있는거죠 그럼 취업가능 한거죠 사실 이부분은 복지적인 것이 베이스로 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 안에 할수 있는 공공시장을 만들어 내는 것 플러스 지금은 사실 그걸 넘어서 지역을 중심으로 어르신들과 그밖에 다른 취약계층들이 있죠 청년들도 실업자가 있죠 말하자면 취약한 사람들도 있죠 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지역단에 지역에 필요에 기반해서 만들어 진다면 이안은 함께 할수 있습니다. 그런식에 정책방안이 맞지 않을 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심재진 위원 : 오늘이자리가 노인일자리 사업위원회인데 민간취업 활성화에 대해서 토의한다고 하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자리가 노인일자리사업위원회인데 그럼 노인일자리지원센터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민간취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일자리센터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이런부분에서 조언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영성 위원 : 크게 보면 민간일자리, 또하나는 공동작업장인데 제가 공동작업장 잘되는곳과 안되는 곳 한군데씩 다녀와봤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하면 제가 봐도 어르신들이 순발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이런거 때문에 65세 이상이 취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한된 시장 아니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라인의 일부를 가져오는겁니다. 공동작업장을 보면 물류

비용을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쇼핑백 끈끼우는거 눈 붙이기 단순한거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 쇼핑백 같은 경우에도 구멍을 뚫고 끈을 끼우고 이 2개 작업을 하면 좋은데 그럼 한 15원 받아요 끈 끼우는건 5원 받는데 2개 작업을 하면 15원 받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분리작업이 너무 많아요 어르신들이 그걸 못하시는거예요 아니면 기계를 사야하는데 그게 비용이 많이 드니까 어쩔수 없이 5원 실정으로 갈 수 밖에 없는거예요

강미경 위원 : 제가 일을 하다보니까 이게 연령대 별로 작업을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공동 작업 거리들이 있는것인데 제가 보니까 군복실밥따기가 있는데 그게 단가가 굉장긴 세긴 한데 군 기업업체다 보니까 관에서 관리를 하는 기업이죠 그런것들은 쉬운거잖아요 그건 정말 눈만 보이면 누구나 할수 있는 일들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쇼핑백 같은 경우에는 젊으신분들이 하셔야 하는 일들이고 공동작업장이라 하더라도 어르신들 연령대에 투입을 할수 있는 물량들을 관에서 하는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복 만드는곳 그런일거리들은 어느 누구나 연령대별 상관없이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기업체 방문해서 어르신들이 할수 있는 일들을 가져올수 있는 그런 연구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영성 위원 : 노인일자리지원센터에서 자꾸 민간분야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게 노인일자리지원센터에 정체성이라던지 기능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되는데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어디 잘되는 곳에 가 보면 관내 기업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일자리가 넘쳐나는 곳이 있어요. 장소가 모자라서 못하는 곳도 있고 일자리가 없어서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두군데를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기업쪽은 소개시켜 달라고 합니다. 시장이 다 깔려있는 상태고 그런거를 연결을 시켜 달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가 반면 장소를 제공해달라 라는 곳도 있습니다. 그게 보니까 공동작업장이 공간이 많이 필요해요 일자리센터에 분류를 한다고 하면 물론 노인연계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 중앙회나 이런곳을 보면 업종이 쪽나오고 거기서 노인들이 갈수 있는 업종이 뭔가 좀 좁혀가서 그런 대학도 시군에서 수행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잘되는 사업들 중 확대시킬수 있는지 이런것들을 좀 연구좀 하셔서 잘되는거는 다른데 전파해주고 또 그런기업 유형이 시흥시에서 잘되었으면 또 그런기업이 어디있나 보고 또 연계해주고 그런생각입니다. 시장에 깔려 있는 것을 우리가 엮어서 가지고 연결만 제대로 시켜도 사람은 많으니까 제가 안양을 가보니까 거기는 담당자가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5원짜린데 인건비를 못받았다 하면 기업에 가서 인건비를 받는다고 하더군요 일거리도 굉장히 많고

사람도 많고 그런데 장소가 없는 상텐데 저는 취업연계도 한번 연구 해보시고 라인의 일부를 어르신들이 참석할수 있는 부분을 좀 좁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규철 위원 : 생각나는 아이디어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생각에는 사교육비가 많이 들잖아요 사교육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고 한데 65세 이상 교단에서 계시다가 퇴직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분들에게 장소를 제공해주고 그분들에게 큰돈은 못드리지만 최소의 경비를 투자해서 최대 효과를 낼수 있는 시스템들을 마련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교육비가 심각하게 이루어 지고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에서 교단에 섰던 분들을 찾아내서 기본적으로 한지역만 지정해서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송승욱 위원 : 저는 창출도 중요한데 유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지할수 있는 방안과 제도적 지원이 빨리 마련되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막상 사회복지 현장은 아직 그게 도입이 안되고 있는게 보조금으로 60세 이상 퇴직분들을 인건비를 지급할수 없게끔 지침이 되어있어요 그렇다면 사회복지 현장부터 그것을 허물지 않으면 사실은 유지가 어렵지 않을까 제가 아는 복지관은 정년퇴직 이후에 임금을 다운시키고 제고용을 시킨 사례가 있는데 사실은 부담스럽거든요 보조금으로도 임금피크제로 해서 제고용으로 가능할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정책적지원을 해준다면 현장부터 안되면서 어느기업체에 가서 해달라고 하며 그것도 어리석은거 같습니다.

이규철 위원 :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에서 할수 있는 일들을 찾아내야 하거든요 센터에서 할수 있는거를 찾아본다면 작은거부터 시범적으로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준우 위원장 : 회의를 진행 하다보니 노인일자리지원센터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크시다는 걸 느끼네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나뉘던 얘기들을 가지고 기획하고 추려내서 상당부분 고민거리를 얻어 갈수 있을거 같습니다. 재단에 연구진하고 조금더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에 역할과 기능을 다 알고 계실수 있지만 좀더 세부적으로 이런부분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분들 중에 탁월한 분들을 초청해서 서로 얘기도 하고 아이디어도 내고 공유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지원도 해주고 그런것들을 빠른시일안에 만들면 답은 우리가 다 가지고 계신거 같아요

이종성 위원 : 저는 어르신 일자리도 민간취업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특히 수익사업이 되는 시장형사업은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아이템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을 선발을 해서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드리고 거기서 나온 수익을 적지만 나눠주는 형태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정부 보조금이 없으면 운영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계속 고령화 사회고 2020년 시대는 고령사회가 된다고 하는데 그다음은 초고령 사회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 하면 어르신일자리라는 표현 보다는 이제는 어르신들도 사회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자리에 녹아날 수 있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아까 김춘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인센티브 문제인데요 사실은 그 인센티브에 의미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회적으로 어르신의 노동력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분위기를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한번 고용해서 같이 일해봐라 충분히 하실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시켜 주는 하나의 수단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쩔수가 없어요 지금은 사회적으로 인식개선이 안되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사회에서 어르신들을 같이 일자리에서 생활할수 있게 하려면은 분명히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가 할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 저희는 시니어인턴십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별기관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조인을 해서 취업을 시켜 드리는 것도 있지만 특히 노인인력개발원에서 큰 단위로 MOU를 맺습니다. 예를 들어서 CGV에서도 어르신이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하면 청소라던지 그 외에 서브역할을 하는 것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 CGV와 MOU를 맺어서 여기에 장기적으로 어르신들 교육을 시켜서 투입을 하겠다 너희들이 대신 써라 대신 너희들이 인정할 동안만큼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 이것이 시니어인턴십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에서도 경기도에서 어르신들이 하실수 있는 일자리 틈새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틈새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하고 조인을 해서 재정적인 지원이 안되더라도 당근이 될수 있는 인센티브를 줘서 그런자리에서 어르신들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잖아요 그게 단기간에 끝나는건 아니니까 지속가능한 일자리에서 녹아난다면 사회적으로도 인식이 가능 할 것이고 어르신들도 그안에서 능력발휘를 할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시니어인턴십은 연수형이 있고 인턴형이 있습니다. 연수형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개념이 아니고 말그대로 연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30만원씩 지원을 해줘요 그리고 인턴형 같은 경우에는 6개월동안 급여에 50% 맥시멈 45만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대부분의 기업들을 보

면은 3개월하고 자르고 6개월하고 자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3개월 플러스 3개월을 해야지 저희들이 그 계약을 받아줍니다. 그건 뭐냐하면 3개월동안 지원을 받고 같이 일해서 당신들이 부담을 해서 어르신들을 3개월동안 더 써봐라 근데 그 과정을 거치면 계속 고용이 됩니다. 계속고용이 최소 50% 이상이 됩니다. 그기업에서 자기네들 예산으로 그 어르신을 고용한다는거죠 이게 확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반에 김춘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경기도 차원에서도 예산이 힘들다라고 하면 예산에 버금가는 인센티브를 줄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민간취업 활성화가 되죠 그렇지 않고서는 현재로서는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부분 말씀드렸고 이제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에서도 어르신들이 하실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서 MOU를 체결해서 끌어줄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수행기관 입장에서는 큰도움이 되고 어르신들한테도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우 위원장 : 제가 오랜만에 외부나와서 회의를 했는데 제일 열띤 회의였습니다. 마무리좀 해야 할거 같구요 제생각으로는 오늘 나왔던 얘기들을 실무자께서 참석했던 분들 메일로 보내주시면 오늘 회의 끝나고 나서도 얘기가 나올수 있을 것 같고 그 얘기들을 취합하면 이후에 진행되지 못했던 부분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안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계시면 한분정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철 위원 : 심재진 위원님 제가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이규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업들이 과거에 종합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이나 시니어클럽 자활에서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사업인데 이유는 학부모들 입장에서 믿을 수가 없고 인증이 안되었고 여러 가지 잠재적인 요인이 있었고 이것을 노인들의 민간취업분야 에서만 생각을 하신다면 경기도사회서비스지원단 하고 연계를 해서 이것을 정식 바우처 사업으로 해보시면 어떨까 경기도에서 인증한 사업이고 경기도에서 어르신의 충분한 실력과 믿을만한 인성과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한 사업으로써 이것을 단순히 수행 기관에서 하는 것 보다는 지원센터 혹은 도차원에서 하는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바우처 사업으로 해서 도시근로자평균소득에 120% 이하 이신 분들만 신청할수 있는 정말 순수한 민간분야 일자리를 바우처와 연결해서 해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준우 위원장 : 저는 연구를 해봐야 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3가지 있는데 시니어인턴십하고 지금 말씀해주신거와 라인을 가져오는 것이 생각이 나는데요. 지원센터에서 검토하셔서 굉장히 현실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주셔서 제가 아까 정리정돈을 해보시면 상당히 많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분더 말씀 하실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영 위원 : 경기도 현황을 보면 노인인구가 125만명이고, 기초연금수급자가 75만명, 그중에서 공공형 일자리가 3만 8천개가 안되요. 시장형 전국형 다합쳐도 3%밖에 안됩니다. 그사업은 수행기관에서 하는것이고 정부에서 하는 사업은 그게 다입니다. 자꾸 민간분야 일자리를 얘기하는게 한계가 있다 그게 3%지만 예산으로 보면 735억입니다. 굉장한 숫자인데 그렇다 보니까 자꾸만 민간일자리 얘기가 나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복지관도 계시고 시니어클럽도 계시고 한데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에서 서로 소통이 잘되어야 한다 현장에 계신 분들이 쉽게 지금 여기서 하신 말씀을 쉽게 일자리센터에 말씀 하시고 그런 것을 계속 관리하고 건의할수 있는건 건의 하고 같이 문제를 풀고자 하는 그런것만 되도 아마 시군에서 수행기관에서 기업체 발굴에 에로사항이 있어서 도와줄 수도 있고 이런부분만 구축해도 상당히 발전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심재진 위원 : 여기에 계신 시니어클럽, 실뱅, 협회에 계신분들이 많이 계셔서 말씀 드리지만 적극적으로 협조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민간일자리부분에서는 위원님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우 위원장 : 네,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도 회의를 많이 다녀보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한시간 반동안 자유롭게 회의를 했다는게 의미가 있는거 같고 저도 또한 배우고 가는거 같고 좋은 센터가 되었으면 좋겠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오늘 주신 문제 등에 대해 센터의 각종 사업 및 운영에 최대한 반영하셨으면 좋겠고, 이상으로 제 5회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사업위원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참석11명 : 이준우, 심재진, 최영성, 이규철, 강미경, 김춘남, 송선영, 송승욱,
신우철, 이종성, 장윤경